동아시아 불교, '국가'를 어떻게 마주했나

동국대 불문연 HK+사업단
3월 20일 국제학술대회
韓·日 등 동아시아 사례로
'호국불교' 다층적 조명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은 3월 20일 '불교와 국가 : 동아시아 승가와 호국불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 참가자와 내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 제공=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불교 전래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호국불교'의 전통과 그 이면에 숨겨진 다층적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은 3월 20일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불교와 국가 : 동아시아 승가와 호국불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사례를 가로지르며 불교가 국가와 전쟁,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만나 왔는지를 전문 학자들이 다각도로 짚어 눈길을 끌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임진왜란 시기 의승의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의'를 통해 기존 호국불교 담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려대장경 조성과 조선 의승군의 참전은 그 성격이 판이함에도 이를 '호국불교'라는 단일한 틀로 묶어 온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선 시대 승가의 직접 참전은 한국불교사에서 극히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안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참전 의승을 의승장, 법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전명의승(傳名義僧), 확인하기 어려운 망명의승(亡名義僧) 세 부류로 분류하며 수천 명에 달하는 망명의승의 헌신적인 희생이 "피폐해진 가람 중수와 선가(禪家)의 법통 복원 등 17~18세기 조선불교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됐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석주관 전투 당시 화엄사 의승 153명 전사 기록, 유정 최응사 휘하의 은해사 승려 참전, 칠백의총에 승군 300명의 시신을 합사(合祀)한 인봉 전승업 선생의 유고 등 신규 발굴 사료를 소개하며 잊혀진 고혼을 위무해야 함을 촉구했다.

현대 한국불교의 군종 제도를 짚어본 조나단 칼 포이어(홍콩대 박사 후 연구과정)의 발표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1968년 설립된 불교 군종 제도를 단순한 교리적 재해석의 산물이 아닌, 당시 불교인들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불교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봤다. 나아가 군승들이 '살생하지 말라'는 근본 계율과 군대의 폭력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겪었음을 지적하며 "스스로 '승려인가, 군인인가, 포교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초기 군승들의 실제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시각에서 호국불교를 살핀 발표도 두드러졌다. 간 친신 중국 서남교통대 부교수는 '일제강점기 대만 혁명승 임추오(林秋梧)의 한국 불교사 저술과 불교 호국사상'을 고찰했다. 대승불학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해 '좌익불학'을 주창한 임추오는 1920년대 후반 일본 유학 당시, 무력으로 나라를 구한 조선시대 의승군들에게서 큰 감명을 받아 〈조선고승전〉 등을 편찬했다.

간 교수는 "임추오가 반침략적 무력 보국을 실천한 조선 의승군의 역사에 반제국주의적 근대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독자적인 호국 사상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완 스님은 '무장한 자비 : 일본 중세에서 승군지장의 탄생'을, 오가와 히로카즈 일본 오타니대 강사는 '19세기 말 일본불교의 호국관과 조선불교 구제 담론의 형성'을 소개했다.

불교, AI 시대 길을 묻다

나주 다보사 · 동신대 인문학 콘서트 개최

3월 21일 동신대 대정도서관서
AI 시대 종교·학문 협력 모색



나주 다보사와 동신대는 3월 21일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에서 'AI 시대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다.

나주 다보사(주지 만민 스님)와 동신대(총장 이주희)는 3월 21일 교내 대정도서관 동강홀에서 'AI 시대의 인문학 콘서트, 지혜의 꽃'을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과 문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만민 스님, 소운 스님(관음사), 본묵 스님(호국사), 덕유 스님(용흥사)을 비롯해 이주희 총장, 전진·송경용 부총장, 윤병태 나주시장, 신도와 학생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연주회를 통한 마음 돌봄'을 주제로 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AX 전략 파일럿 영상 상영, 초청강연, 인사말, 미래 인재양성 지원 프로젝트 장학금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다보사는 이날 동신대 윤태림 학생과 금성고 고영진 학생, 나주고 최주아·류민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만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AI는 우리 삶의 속도를 바꾸고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이런 시대에 대학과 종교가 함께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청강연에 나선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인간 존재와 문명의 본질을 짚으며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나 자유가 아니라 생존의 질과 양을 높이는 것"이라며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을 소비하는 구조 속에서 쉽게 번아웃을 겪는다"며 "자신의 욕망을 원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창조성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창의성은 질문에서 출발한다"며 "이미 있는 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던질 때 정신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의에 이어 만민 스님, 김정용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 혜등 스님(테라와다 라따나 선원 회주), 김춘식 동신대 교수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

김정용 신부는 "AI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이를 누가 통제하는지와 약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민 스님은 "AI 시대는 생산 수단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가 바뀌는 시대"라며 "기계가 일하고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 것인지, 인간의 역할이 축소될 것인지는 결국 인간의 품격과 수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춘식 교수는 "AI를 단순한 기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관점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5월, 템플스테이 이벤트로 행복 두배!

문화사업단 1만여 명에 할인 혜택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을 맞아 템플스테이 참가 할인 이벤트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5월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6년 여행가는 달 캠페인' 행사와 연계해 이뤄지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 이벤트로 전국 120여 개 사찰에서 총 1만여 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모두 3만원에 참가할 수 있고,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에 한해 1만 5천원에 참가할 수 있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모든 할인 혜택은 선착순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여행계획을 고려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 및 관련 정보는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봄바람처럼 화평한 기운이 가득한 사찰 속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스스로가 원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학연구회, 봄 논문 발표회 개최

3월 21일 한국연구원 대회의실
정각사학술원 지원금 전달도

불교학연구회(회장 김원명)는 3월 21일 한국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봄논문발표회 및 정각사학술원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신진 연구자 5명의 발표가 이어졌다. 조율희(전남대)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와해하기'에서 샨따락쉬따와 까말라쉴라의 언어이론을 바탕으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경계가 실제로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단어의 의미가 보편자 자체가 아니라 배제와 화자의 의도 속에서 성립한다는 점을 분석했다.

김동원(동국대)는 '〈무량수경〉 사회성 연구'를 통해 〈무량수경〉의 삼배단을 근본설일체유부율에 나타나는 사성계급 인식과 함께 읽으며 상·중·하의 왕생자 구분이 단순한 수행 단계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 위계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각사학술원장 정엄 스님은 불교학연구회에 3000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지원금은 신진학자들의 발표 기회 제공, 논문 출판 지원, 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2026 원효학당 강좌

4월 1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사)한국불교연구원이 2026년 원효학당 첫 번째 강좌를 연다.

'새로 걷는 붓다의 옛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김성철 금강대 교수가 강의를 맡아 4월 1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장소는 서울 종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이다.

강좌는 △수미산, 무너지다(4월 1일) △윤회, 멈추다(4월 8일) △열반, 사라지다(4월 15일) △붓다의 옛길을 새로 걷다(4월 22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원효학당 강좌는 유료로 전환됐으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구도회원 및 청년구도회원은 5만원이다.

강좌 신청은 구글폼 또는 한국불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kibs@kibs.or.kr) 또는 전화(02-762-5624)로 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